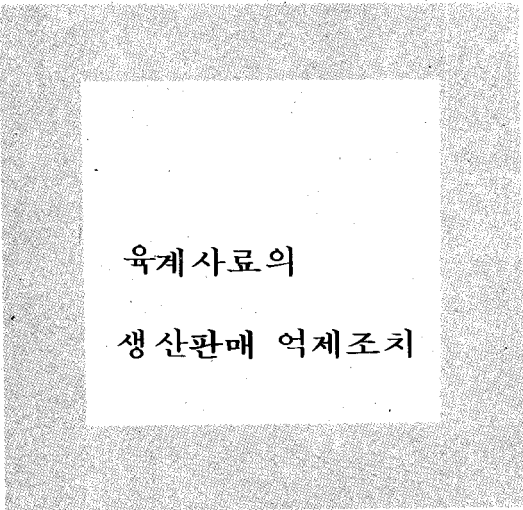




# 5월의 안테나

〈편 집 부〉



## 육계사료의 생산판매 억제조치

농수산부는 금년들어 급격히 증가한 배합사료 물량이 주로 부로일러사료의 급증에 있다고 분석하고, 부로일러사료의 급

증은 왕추 씨미등 불량추 때문이라고 판단 다음 공문과 같이 부로일러 사료의 생산 판매를 억제키로 긴급히 관계기관에 지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 78년 1~2월의 육계사료는 77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0%로 급증 하였는데

2. 이 원인은 육계 초생추 생산 증가 씨미, 왕병아리의 격증으로 육계가격이 하락되어 육계가 체화되어 사료 소비량이 증가하고있다.

3. 이에 따라 각 배합사료 공장은 3월

중으로 육계 사료를 생산 억제할것이며

4. 육계사료 판매는 허가받은 부화장에서 발행하는 초생추 계통보증서의 수량에 의해서만 판매하며

5. 각 부화장은 초생추 계통보증서를 필히 발급하고 각도지사는 월 2회이상 현지 출장 불량추 단속및 사료공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것 등이다.

금년도 사료용 옥수수 공급은 최근 미

농무성에 발표에 의한 옥수수 4% 식부면적 감소와 달러화의 가치 절하로 작년 7~8월에 비해 50%나 가격이 상승하여, 안정기준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가격뿐만 아니라 수급면에서도 다음의 농수산부 공문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옥수수 수요를 억제하여도 7월말 재고는 601 ton에 불과하여 양축가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 있다.

아직도 배합사료의 62% 이상이 양계사료이고 계절적으로 양계사료의 성수기를 맞아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사료용 옥수수 수급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예상보다 빨리 수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상대로 사용해도 5월말 재고는 4,601t이며 6월말은 3,601ton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양축가의 자제와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번 부로일러사료 생산 판매 억제는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에서 보완 조치하여 혼란이 없이 당국에서 소기의 목적 한 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1. 시기적으로 년중 부로일러 소비의 최성수기인 여름철(三伏)을 앞두고 부로일러 사료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3월 물량수준으로 조절하는 어려움과

2. 여러 종류의 배합사료 가운데 육계사료만을 억제 하므로써 육계사료와 성분 함량이 유사한 조생추 사료나 기타 사료로 대체되어 사료효율만 저하 하고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우려가 있고

3. 조생추 계통보증서가 손쉽게 발행될수있고 각 사료공장에서 이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며 병아리의 일령 품종 사육기간 등에 따라 사료수요량에 차이가 있어 사료공장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과

4. 기왕에 분양된 조생추가 사료구입이 곤란하여 시장에 투매할 경우 시장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선량한 육계업자

에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5. 사료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 할 경우 사료판매 업자의 횡포도 있을수있다.

## 참고공문 ①

### 농 수 산 부

사료 : 1162. 52-796

제목 : 불량육계 및 육계사료 생산판매 억제

1. 78. 1-2월 배합사료 생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육계사료가 77. 1-2월 대비 240%로 급증 하였던 바, 이는 육계 조생추의 분양수수증가 및 무허가 부화장에서 분양되는 세미(semi), 왕병아리 등의 생산공급 격증으로 육계 가격의 이례적 하락과 육계체화로 인한 추가사료 공급을 유발하고 있는 비생산적 낭비 현상으로서 사료조절단체인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사료협회장에게 관내 배합사료 공장에 육계사료는 78. 3월실적 이내로 생산량을 억제토록 강력히 조치하고 금후 육계사료 판매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부화장의 조생추 계통보증서의 수량에 의해서만 판매토록 지시 하였으니.

2. 대한양계협회장 및 각시 도지사 는 육계조생추의 부화입란을 자체적으로 생산조절하는 한편 허가부화장에서 조생추 계통보증서를 필히 발급토록 협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각시 도지사는 최소한 월 2회 이상 현지출장하여 무허가부화장을 발본색출하여 폐쇄조치하므로써 세미, 왕병아리 등 조생추 생산을 억제하고 관내 배합사료 공장의 지도감독 철저히 육계사료의 생산판매를 억제하도록 강력히 단속 하시 기바람.

첨부 조생추 계통보증서 서식 1부.

농 수 산 부 장 관

초생추계통 보증서

제 호

|                        |           |  |
|------------------------|-----------|--|
| 계 통 명                  |           |  |
| 용도및세대<br>성별및수량<br>부화일자 |           |  |
| 부화장소                   | 명칭<br>소재지 |  |
| 종란채취장소                 | 명칭<br>소재지 |  |

이와같이 초생추계통을 보증함.

1978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인

귀하

참조공문②

농수산부

사료 1162.52-796

1978. 4. 13

수신 한국사료협회장

제목 사료용 옥수수 절약사용 및 육계사료  
생산판매 억제

1. 사료 1162.52-562(78. 3. 18)과 관련됩니다.
2. 관련호에 의거 78. 3. 29, 4. 4 및 4. 7, 3차에 걸쳐 사료

용 옥수수380천톤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수급상황및 안정기준 가격을 감안하여 200천톤만 구매하고 180천톤은 유찰되었는 바.

3. '78사료수급 계획에 의거 배합사료 2,500천톤(월208,300톤)생산을 위한 옥수수 1,510,500톤(월125,870톤)공급 계획중 78. 3월의 옥수수 사용량은 123,691톤에 달하고 있는바, '78사료수급 계획 및 3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4-7월까지 월 123천톤으로 고정하여 공급할경우 다음과 같이 78. 7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회 회원공장에 4-7월까지 하역기간을 감안하여 월102,500톤 이하로 배정(자연증가물량은 불인정)하므로서 옥수수를 절약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모선별 수급판단에 의한 기간적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농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재구매토록 하였으니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라며.

5. 78. 1~2월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육계사료가 77. 1-2월 대비 240%로 급증하였는 바 이는 육계초생추의 분양수수증가및 무허가부화장에서 분양되는 세미(Semi), 왕병아리등의 생산공급격증으로 육계가격의 이례적 하락과 육계체화로 인한 추가사료 공급을 유발하고 있는 비생산적 낭비현상으로 귀회 회원공장으로 하여금 육계사료는

○사료용 옥수수 수급판단

단위 : 톤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
|--------|---------|---------|---------|---------|---------|---------|---------|---------|
| 수요     | 100,584 | 96,089  | 123,691 | 123,000 | 123,000 | 123,000 | 123,000 |         |
| 공급     | 전년(월)이월 | 93,212  | 113,018 | 97,155  | 105,135 | 155,601 | 46,601  | 3,601   |
|        | 국산      |         |         |         | 9,000   | 14,000  |         |         |
|        | 도입      | 120,390 | 80,226  | 131,671 | 164,466 |         | 80,000  | 120,000 |
| 계      | 213,602 | 193,244 | 228,826 | 269,601 | 169,601 | 126,601 | 123,601 |         |
| 차년(월)월 | 113,018 | 97,155  | 105,135 | 155,601 | 46,601  | 3,601   | 601     |         |

| 구분 | 1                  | 2                  | 3                   | 4                   | 5                   | 6                 |         |
|----|--------------------|--------------------|---------------------|---------------------|---------------------|-------------------|---------|
| 농협 | 12,405<br>(4,875)  | 12,936<br>(4,875)  | 15,240<br>(4,875)   | 20,499<br>(1,429)   | 20,305<br>(1,235)   | 19,789<br>(719)   | 19,070  |
| 사협 | 91,010<br>(-4,875) | 88,671<br>(-4,875) | 108,451<br>(-4,875) | 102,501<br>(-1,429) | 102,695<br>(-1,235) | 103,211<br>(-719) | 103,930 |
| 계  | 103,415            | 101,607            | 123,691             | 123,000             | 123,000             | 123,000           | 23,000  |

(1) ( )는 4~6월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감배(증배) 물량임. (2) 국산옥수수 23천톤(쇠설류) 포함.

78. 3월실적이내로 생산량을 억제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금후 옥계사료 판매는 축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부화장의 초생추 계통보증서에 의해서만 판매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조공문 ③**

사료 1162.52-857 1978. 4.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불량옥계 및 옥계사료 생산판매 억제

1. 사료 1162.52-796(78. 4. 13)에 관련됨

2. 관련호 지시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사료협회장에게 보완 지시하였으니 관내 배합사료 공장의 지도감독 철저도 불량옥계의 생산출하 금지 및 옥계사료의 생산판매를 억제하도록 강력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농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 앞 공한사본 1부.

사료 1162.52- 1978. 4.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사료용 옥수수 절약사용 및 옥계사료 생산판매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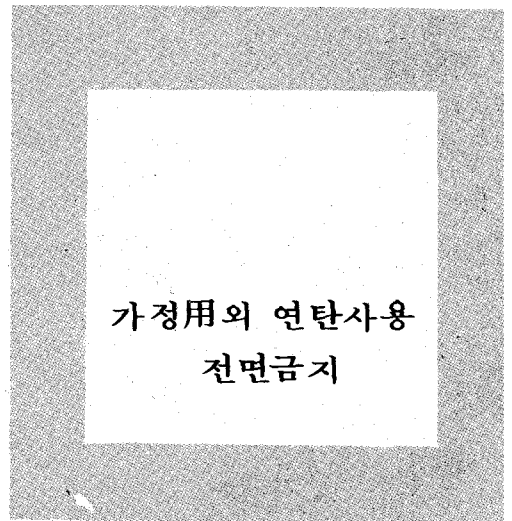
1. 사료 1162.52-795(78. 4. 13)와 관련됨.

2. 관련호 옥계사료 생산 및 판매 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지시하니 이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귀회는 산하회원 공장으로서 하

여금 옥계사료는 78. 3월 실적이내로 생산량을 억제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금후 옥계사료 판매는 78. 4. 20 현재 기히입 식된 옥계에 한하여 장정적으로 이용하되 신규 입식 옥계의 경우는 허가부화장의 초생추 계통보증서의 수량을 확인하고 판매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난 4월11일(화) 동력자원부는 월동기 석탄의 수급부족에 대비하여 석탄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다방 극장 사무실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등에 대하여 연탄사용을 전면금지 시키고 요식업소 과자점, 여관, 의료기관등에 대하여서는 난로용에 한해 연탄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우리가 석탄은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자세히 매장량을 조사해보니 어느덧 석탄도 아껴쓰고 수입해야 할 시기가 오고야 만 것이다.

동력자원부는 1/4분기에 구정등 휴일이 많고 석탄광의 심부개발등으로 무연탄 생산이 부진한데 반해(생산지및 소비지 저탄량은 작년동기의 80%) 가정용 연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 금년 월동기중에 연탄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비 가정용 연탄에 대하여서는 공급을 중단시키고 다방 극장 사무실 관공서및 국영기업체 역대합실 각종 제품의 총판 대리점, 직매점, 음식점, 슈퍼마켓등 상가, 점포등에 대해서는 연탄공급을 중단키로 했는데 난로용에 한해 연탄공급이 제한되는 대상은 요식업소, 과자점, 여관, 의료업소 등이다.

동력자원부는 이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에 의거 규제대상을 공고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각시도 주관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 양계업계에서도 석탄의 수급 전망이 어렵고 정부에서 최근에는 태양열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위하여 관제관을 미국, 블란서, 호주, 이스라엘등에 파견하는등 제반 여건으로보아 앞으로 계사를 신축할때는 반드시 단열재료를 사용하고 현재계사의 열관리에도 새로운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최근 석유, 가스등의 육추기 난로등이 새로 개발되어 시판, 선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성 검토는 물론 외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태양열의 이용도 현 우리나라의 기후여건 등으로 보아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겠다.

아무튼 금년도 월동용 연탄수급 전망이 흐린이상 각 양계장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유비무환의 현명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 畜産物 직매장 426곳 增設과 肉鷄價格

농수산부는 육류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협축산물 직매장을 4월말까지 270개소 하반기중에 156개소등 모두 426개소를 증설하여 수입 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하기로 하였다.

4월 11일 농수산부는 현재의 농협축산물 직매장 174개소에서 600개소로 대폭 증설키로한 계획에 따라 직매장을 주요상가, 아파트지역, 슈퍼마켓에 우선 174개를 개설하고 나머지 156개소의 직매장은 동단위로 직매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농협축산물 직매장을 개설하는 자에게 400만원 한도내에서 지리

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직매장개설 신청자는 54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소비자는 금년 후반기부터는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게 되었다.

최근 공급량의 증가로 부로일러 값은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고 있어 부로일러업자는 물론 부화업계 사료업체 제약회사, 양계기구업체등 모든 관련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

년초 쇠고기값이 600g당 2400~2500원, 돼지고기값은 1,200원선 할때, 닭고기도 kg당 700원을 유지하였으나 쇠고기및 돼지고기값의 하향조정과 함께 부로일러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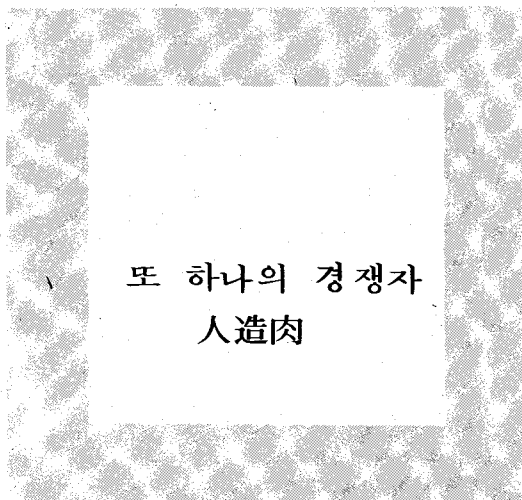
쇠고기및 돼지고기 가격의 하향조정은 일반소비층의 육류소비를 닭고기에서 쇠고기로 대체시키는 결과로 정착화 되지않을까 양계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쇠고기의 수입가격이 ton당 C&F 1,200\$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닭고기도 도체처리한 것이(美國) C&F가격이 현재 국내에서 생체로 농장도 가격보다도 싼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부로일러 업체는 비싼 초생추 가격 및 품질의저하와 질병및 사료의품질등 제 요인으로 사료효율이 나빠 생산비가 너무도 높았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로일러 사료 생산판매를 일부 억제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부로일러 생산비를 대폭절감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쇠고기및 돼지고기와 경쟁하여 이길수 있도록 업체스스로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바란다.

부로일러 가격이 하락하는 이때 쇠고기의 대량수입은 아무래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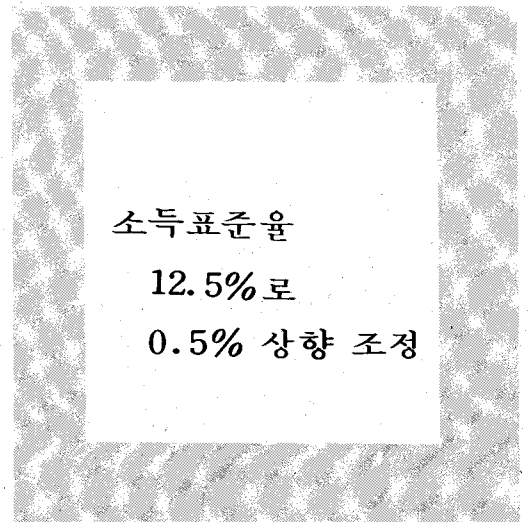
대한종합식품(주) 진주햄소시지등 육가공업체들은 최근 大豆人造肉을 원료로한 육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18일 이들 업체들은 각종 육류와 함께 대두를 원료로한 인조육을 사용하여 소세지등 고급 육가공품을 생산키로하고 이를위해 지난주부터 동방유량에서 시제품용 대두인조육을 공급받아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대두인조육은 동물성 육류와 달리 成人病발병 위험이 없는 건강식이고 제품원료 가격도 돼지고기나 생선보다 훨씬 저렴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방유량은 금년초부터 대두인조육을 생산 4월 중순부터 시제품 원료로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대두등 식물성 식품의 가공기술 발달로 제란및 고기소비가 감소된점을 감안하면 우리 축산인에게 힘겨운 또 하나의 경쟁자가 생긴셈이 되겠다.



국세청은 77년도 양계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12.5%로 확정하였다.

소득표준율이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및 동, 시행령 제169조에 의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총수입금액(외형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하여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초공제 및 장해자 공제)한 금액에 과세를 하게 된다.

일반법인체로 구성된 양계장이나 法에 의해 성실히 기장을 한 업체는(실사를 받는 업체) 소득표준율이 높고 낮음에 아무 영향이 없으나, 현 우리업체 실정이 대부분 아직도 稅法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장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사양관리 등 생산부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으나 부기에는 대부분 혼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계과세(소위 인정과세)될 경우 소득표준율의 1%는 실제 과세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양계업은 다른업종에 비하여 수익율이 낮고 외형액이 크므로 추계과세를 할 경우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본회에서는 77년부터 성실기장을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산란계 및 육용계에 대한 제반생산기록 및 수입지출을 기록할 수 있는 양계경영일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77년도의 경우 전반기의 사료파동 등으로 실제 계란이나 닭고기의 외형가격은 높았으나 생산비가 높아졌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소득표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되므로 기장을 하지 않는 업체는 피해를 2중으로 보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78년도부터는 성실 기장으로 모두 추계과세를 받는 업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 같으나 가장 빠른 길이고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 가축사육 지역확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30호로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를 공포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월 16일 구청장 및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린벨트내 축사 건축허가 및 관리를 건설부 발표의 개발제한 지역 해설집에 의거 1가구당 90평 이내에서 허용키로 하고 기존 축사의 정비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위생상 문제점이 있는 축사(70. 6. 20이전 기존 무허가 축사 포함)는 가능한 한 정비하고 신규 허가설치도록 지도하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하는 농촌등을 고려하여 축사도 같이 허가 및 정비키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地目이 대지가 아니라도 축사 건축 허가가 가능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축사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축사의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으로는 표준설계도 사용으로 가축별 규모별 표준설계도를 시에서 작성 배부토록 하며 허가신청 대행은 단위 농협에서 관할구역내에 축사 건축 허가신청 희망자를 조사, 개별적으로 구비서류를 완비 동장 경유 농촌지도소에 이첩하고 지도소에서는 동장의 협조를 얻어 축사의 위치(도시환경 및 환경위생 등 참조) 축종의 적부등을 검토하여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일괄 제출 허가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하였다(서식은 단위농협에 비치) 축사의 사후관리

는 동장 및 단위농협장이 관할내에 허가건축한 축사가 타용도에 전용되거나 증축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는 동장과 단위농협장을 문책하기로 하였다. 가축을 사육할수 있는 지역은 다음 조례 내용과 같다.

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1230호

부 칙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지역<br>구분 | 가축사육허용지역  |  |
|----------|---|--|
|          | 전체허용  | 일부허용   |
| 동대문구     |   | 신내동, 망우동, 상봉동, 묵동,   |
| 도봉구      | 상계 1, 2동, 중계동, 하계동                                | 공능동, 월계동   |
| 마포구      |   | 상암동.   |
| 영등포구     | 천왕동, 향동   |  |
| 강남구      | 우면동, 개포동, 포이동, 염곡동, 내곡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동, 수서동. | 원지동, 신원동.  |
| 강서구      | 파해동, 오색동, 오곡동.                                    | 외발산동, 방화동, 개화동, 가양동, 마곡동, 신정동.   |
| 은평출장소    |   | 진관내동, 진관외동.  |
| 천호출장소    | 하일동, 고덕동.   |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오금동, 문정동, 잠지동.  |
| 특기사항     |   | X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이내의가시권<br>0. 경부고속도로변500m 지역<br>0. 통일로변 300m<br>0. 기존주거밀집지역 (농촌지역제외)<br>0. 공공시설물인접지역 |

※ 0 표는 새로 사육지역으로 된곳



## 식품공업에 외국인 투자 허용키로

최근 유명메이커의 식품 일부가 변질 또는 구더기등이 나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도 하였다.

정부는 국내 생산 각종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보건위생 관념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식품 메이커의 국내 진출을 허용, 식품공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EPB(경제기획원)에 따르면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만 사용하는 식품
2. 국내생산이 되지않는 품목(예 : 인스턴트식품)
3.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보다 월등히 높거나
4. 국내 생산제품의 품질이 국제 수준에 미달 하는 식품
5. 전량 수출되는 식품에 대하여 과감히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므로서 국내 식품의 품질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식

품공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이 지분을 많이 갖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를 촉진 시키는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점 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하였다.

최근 지상보도를 보면 크립의 대명사인 미국의 카네이션(Canation)이 국내 삼양식품과 우유가공 기술 제휴를, 쌍용산업이 스위스의 종합식품 회사인 네슬사와 합작을(이유식및 고단백식품)그외 가버·하인스등 세계 굴지의 식품회사가 국내 상륙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이들 식품회사가 닭고기나 계란을 원료로 하는 많은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몇년전 동양고속의 방계 회사인 동양농산(주)에서 미국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과 합작회사를 시도하였으나 보건 사회부의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다.

코카 및 펩시가 국내상륙하여 청량음료 소비를 대폭 증가시키었고 휘모스트의 진출은 국내 낙농업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 국민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중식품으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하겠다.

앞으로 어느 회사가 국내 상륙할지는 모르겠으나 휘모스트의 예처럼 켄터키 치킨 같은 회사가 상륙하여 낙후된 우리의 육계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침체된 부로일러 산업에 새 활력을 넣고, 현재 30%에 머무르고 있는 닭고기의 전체육류소비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50%까지 올려 주었으면 하는것이 양계업자의 바람이겠다.

이번 정부의 식품공업에 외국의 자본기술 도입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양계산물을 제외한 다는 농산물의 가공이 증가되어 앞으로 도시생활에 어쩔수 없이 찾아올 인스턴트 식품 시대에 닭고기 계란만이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자라나는 햄버거 세대에 닭고기와 계란을 먹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여도 빠른것은 아니겠다.